

## 정신적 · 환경적 변수가 오르가즘 좌우

글\_이용희 동서울병원 비뇨기과 원장 lwhuro@korea.com

오르가즘(Orgasm)은 '욕망으로 부풀어오름'이라는 뜻인 희랍어 'Orgao'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경 생리학적인 측면과 개인의 주관적 표현, 두 가지 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즉 생식기, 골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경 생리학적 반응과 대뇌에서 기원하는 주관적 쾌감에 의한 절정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오르가즘은 자율신경을 통한 생식기, 유두, 피부 전반의 혈관 확장과 눈동자(동공) 확대, 발한(땀) 등과 골반 근육들의 수축현상이 동반되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감각적 경험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은 서로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낚이는 오르가즘을 '성 반응의 절정에서 나타나는 신경근육 긴장의 폭발적인 분출'로 표현하였고, 마스터즈, 존슨은 '요도구를 통한 정액의 배출뿐만 아니라 부속 생식기관에서 정액 성분이 배출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다른 성의학자들은 남녀의 오르가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에서는 사정기능과 연관해서, 그리고 여성에서는 성기의 외부 1/3(orgasmic platform)의 수축과 연관된 절정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여성에서 성기, 자궁, 혼합 형태의 세 가지 오르가즘 형태가 있다고도 말하면서 성기 오르가즘을 성기 수축, 자궁 오르가즘을 무호흡과 강한 호기, 그리고 이들의 혼합 형태의 오르가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르가즘을 '정신적, 생물학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성적 흥분의 정점에서, 중추에서 전달되는 폭발적인 신경근육 반응이며, 이 쾌감은 골반의 생리적 동시 반응이 동반되기도 한다'라고 정의한다면 오르가즘의 쾌감 측면이 강조될 수 있고, 여기서 골반 반응 등의 생리적 반응은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다양한 오르가즘에 대한 논란은 오르가즘이 정신-성 반응이기 때문에 물리적 관련성의 관점으로만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오르가즘의 경우 어느 정도 학습되어지는 활동이라고 하며, 사회적 · 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성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반응은 성행위와 연관된 수많은 정신적 · 사회적 · 환경적 변수에 의해 그 만족도가 좌우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가즘은 남성보다 여성의 오르가즘이 훨씬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오르가즘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성적 활동중의 말초 자율신경계의 표현 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결론적으로 단언하기 힘든 실정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오르가즘을 늦추고 싶어한다는 조사 보고들을 근거로 여성의 조기 절정감 반응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재는 사정과 연관된 남성의 오르가즘과는 달리 대부분의 여성들이 조기 절정감 장애가 있어도 성행위를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그만큼 이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자에 따라 정상적인 여성의 70% 이상이 오르가즘이 늦춰지길 원하며, 특히 이들은 이성간의 성행위나 자위 행위 여부에 무관하게 연장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의 지연 절정감 반응은 흥분되는 느낌이나 성적 자극에 따른 피의 유입 증가 등의 물리적 변화는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남성의 조루증으로 인한 여성의 절정감 장애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조루증이 아닌 것이 확인된 후, 여성의 흥분기에 대한 조절과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반응값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절정감 반응 손상은 오르가즘 동안 희열의 강도가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흔히 성욕 자체가 감소되는 경우가 동반되기 쉽다. 여기에는 절정감 순간의 불안이 관련될 수도 있는데, 오르가즘 강도의 감소 때문에 병원을 찾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의학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또한, 병용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병력과 약물 복용 여부가 그 원인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절정감 반응(불감증)은 성적인 억압에 기인하며 남성과 여성을 단순히 비교한다면 여성 자체가 단연코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며, 임상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원래부터 불감증인 환자(원발성 불감증)들은 정신적 원인의 병인이 있는지 먼저 찾아봐야 한다. ㉔